

90장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 내 친구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꼬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67장 -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1.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2.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가네
3.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4.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따라 나아와 찬송하네
5.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8월 16일(금) 기도 담당 : 이광현 집사

2019년 8월 15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90장	다같이
기도	고성호 집사
성경봉독 에스겔 3장 16~21 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고형석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267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에스겔 3장 16~21절 >

16 칠 일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20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광고>

9월부터 새벽기도회(오전5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자원 부탁드립니다.
격주로 반주를 합니다. (문의: 010-6403-2441)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8월 15일(목)

하나님 아버지, 새 호흡을 주시고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주를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영을 더하시사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성도요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님 두신 자리에서 생명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사용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나날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를 깨우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4년 전 일제의 총칼 아래 얼룩진, 어둠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겨레는 지내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경제성장 속에서도 영적 기근과 정신적 공허함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겨레가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공산 정권 아래서 기아와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속히 하나 되게 하시어 분단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색된 외교관계와 정치적 대립이 은혜 안에 해소되게 하시고 온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환우들과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주의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